

## 생산적인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학제적 소통을 위한 방안\*†

1)

고 인 석<sup>‡</sup>

‘통섭’과 ‘융합’이라는 화두는 수 년 전부터 학계 안팎으로 유행이지만, 생산적인 학제적 소통의 활성화를 향한 “어떻게?”의 물음에 대한 세분화된 응답과 구체적인 기획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문화’의 상황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을 지니는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학제적 소통을 진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학제적 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양태의 소통이 기대되는지를 논의한 후에, 생산적인 학제적 소통을 진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특히 이 글은 구체적 목표를 지향하는 융합연구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그런 융합연구의 성립 근거인 유연한 소통문화를 진작하는 하부구조로서 이 글이 ‘스스럼없는 난교의 마당’이라고 칭한 풀뿌리 교류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제안에 강조를 싣는다.

【주요어】 두 문화, 학제적 소통, 융합연구, 난교의 마당

\* 접수완료: 2010.11.29 /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2010.12.13 / 수정완성본 접수: 2010.12.17

† 이 글은 2009년 11월 ‘철학과 첨단과학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 철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철학과 과학의 소통,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소통을 진작하는 방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 작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학술대회에서 논평을 해주신 이남인 교수님,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한 심사위원이 제안한 ‘소통과 융합의 주체’ 문제에 대한 세밀한 토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 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토론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

## 1. 스노우의 『두 문화』를 되돌아보며

1959년 리드 강연(Rede Lecture)에서 스노우(C. P. Snow)는 ‘두 문화’를 이야기했다. 그가 강연에서 제시한 이 주제는 이후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성계의 문제 상황을 짚어내는 유효한 화두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노우의 리드 강연과 오늘 사이에 놓인 지난 50년 간 이루어진 학문의 발전은 그 규모와 성격을 도무지 다잡아 말하기 힘들 만큼 너르고 깊고 다채로운 것이었다. 그런데 50년 전 이야기가 왜 여전히 화두로 작동하는 것인가? 지난 50년은 ‘두 문화’라는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몇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안타깝지만 그렇다. 학문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변모했지만, ‘두 문화’ 간 소통의 결핍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된 바 없다.”라는 것이다. 반면에 “아니다, 오늘날 학문의 발전 양상은 더 이상 ‘두 문화’ 간의 간극이 유지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고, 문화가 단숨에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학문의 지형도는 점차 다양한 융합과 통섭이 실현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두 문화 이야기’는 이미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대답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스노우가 말한 ‘두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인 것이고, 무조건 해소되어야 할 ‘학문의 적’도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악’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라는 대답에도 일리가 있다. 필자의 생각은 이것에 가깝지만 이 대답은 해명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학문들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서로에게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하는 문화적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 문화적 간극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극의 존재는 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 중 어느 것의 부정도 함축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문화적 간극의 존재’와 ‘소통’은 오히려 상보적 관계에 있다.

나는 50년 전 스노우가 설파한 ‘두 문화’가 예리한 통찰을 반영하고 있음을 공감한다. 그것은 사실의 차원에서 정확한 통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위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 통찰이었다. 그는 두 문화를 보여주

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전형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모르는 인문학자’와 ‘셰익스피어를 읽은 바 없는 과학자’를 묘사했다. 그리고 두 문화가 서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만남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창조의 기회 역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개탄했다.<sup>1)</sup> 그런데, 인문학자에게 열역학 제2법칙은 왜 필요하고, 물리학자에게 셰익스피어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Foundation* 시리즈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그리고 영화 『가타카』, 『매트릭스』, 『아바타』 등은 하나같이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의 결합이 낳은 산물이다. 비슷한 예는 많다. 차분히 분석한다면 오늘날의 문학과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속에서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합이 스노우가 말했던 ‘두 문화의 만남과 그것을 통한 창조’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인가? 천문학도나 전자공학도가 박경리의 소설이나 김수영의 시나 장자를 읽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 문학 작품이나 철학적 논저와의 만남을 통해 우주, 생명, 인간, 시간과 공간, 물질과 정신 등에 대한 관점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연구에, 나아가 이론적 발견과 세련화의 방향 설정에 관한 힌트와 추동력을 얻는 과학자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힌트와 추가적 추동력이 두 문화 간 소통의 궁극적 지향점인가? 만일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글쎄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정도의 자신 없는 대답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소통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아야만 할 것이다.

인간은 소통을 욕구한다.<sup>2)</sup> 많은 현대인에게 소통의 욕구는 많은 경우

1) 이와 관련하여 스노우가 서술한 자기 나라 영국과 미국 상황의 비교는 당시 강연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글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거론하지 않는다.

2) 여기서 이 글은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철학적 물음을 조금 긴 각주 하나로 처리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글의 취지가 이 물음 자체에 천착하는 데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음을 주제화하는 것이 글 전체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통(疏通)’의 개념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세 가지 대답을 제안하고 전제한다. 첫째, 그 실제 사용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소

에 끼거나 수면보다도 더 우선하는 중요성을 지니게 된 듯하다. 소통은 정보와 문화를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만남, 혼합과 융합, 그리고 창조를 촉발한다. 그러나 소통이 늘 좋은 것만 낳는 것은 아니다. 소통은 자주 우리에게 불통과 불완전한 소통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정보와 문화 그리고 정서의 흐름을 통해 때때로 갈등과 파괴적 충동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학문의 영역에서, 학문분야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소통의 바람직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특히, 철학과 과학의 소통은 어떠한가? 또 그런 바람직한 소통의 진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 글에서 내가 답하고자 하는 물음들이다. 그러나 이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대체 학문분야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왜 기대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2. 소통은 무엇 하리?

스노우의 두 문화 이야기에는 중요한 선결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빠져있다. 그것은 ‘두 문화 간의 괴리는 왜 해소되어야 하는가?’하는 당위 근거에 대한 해명이다.<sup>3)</sup> 이 문제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한 단계

---

통’은 서양 낱말 *communication*—또는 *communicatio*나 *Kommunikation* 등 그에 상응하는 낱말—의 우리말 번역어다. 둘째, ‘소통’은 [막힌 것을 뚫고] 서로 막힘없이 오가는 행위나 과정, 혹은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의미의 ‘소통’과 상반되는 개념은 ‘불통(不通)’이다. 셋째, ‘소통’은 (넓은 의미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나 과정을 뜻한다. 소통은 명제적 구조를 지닌 정보와 견해 이외에 질적 느낌과 정서적 요소, 태도 등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러한 전달 역시 주로 문자와 음성언어 중심의 언어적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 3) 정확히 말하자면 50년 전 그가 토로한 불만은 두 문화가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인문적 지식인들의 편파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에 반영된 불균형-불평등에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일반화시켜 따져보자. 왜 학문의 영역 간에 불통(不通)은 나쁘고, 소통이 필요한가? 어쩌면 이 물음은 논의가 불필요할 만큼 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생략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물음을 달리 정식화해보자: “상이한 영역 간의 소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물음은 중요하다. 오늘의 사회는 전문분야들 간에 어떤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진작할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먼저 분명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세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복합적인 문제 다루기

인간의 삶이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국제적 차원의 정치긴장이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첨단기술과 관련된 공학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 고민 같은 거시적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문제들만 해도 심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복합적 성격을 띤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 중에서 예컨대 어떤 가정사의 심리적 차원만 분석하려고 해도 청소년의 성장기 심리,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과 대면하고 있는 중년 가장의 심리, 그리고 그런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특성에 따른 집단 행태심리, 인터넷 소통과 결부된 사이버 심리 등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과 분석 도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가 가진 과학적 분석의 틀이 어느 만큼이나 광범위하고 견고한 유효성을 지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실질적, 이론적 문제들을 학문의 힘을 빌려 분석하고 나아가 제어하려 할 때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복합성의 상황을 만난다.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제어하기 위해 여러 전문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기적 협력의 실현은 협력하는 전문분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요구한다.

4) 만일 이런 목적이 단일하지 않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역시 상이한 목적에 따라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차용, 응용, 상호자극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증대

분야 간 소통의 두 번째 효용은 그것이 소통의 쌍방을 자극하고 유인하여 신선한 관점과 창조적 방법론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이런 유인이 이루어지는 경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다른 분야의 이론이나 개념, 혹은 방법론을 가져다가 내 분야에 적용하는 차용(借用)이 그 하나이고, 이와 유사하지만 이쪽 분야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형, 수정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응용(應用, application with modification)이 또 하나이며, 이런 구체적인 이론적-방법론적 요소의 직접 도입 없이 간접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거나 문제해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유형이다. 간접적 자극에 의한 개선과 변형을 통한 응용 사이의 경계가 아주 또렷하지는 않지만 유형의 분리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전자에는 각 분야의 상이한 관점들이 충돌하거나 타자를 비판하는 형태로 자극이 이루어져 변화가 촉발된 경우가 포함된다.<sup>5)</sup>

## ③ 문제, 방법론, 해답의 비판적 재검토

상이한 분야들 간의 소통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용은 그것이 ‘제3의 관점으로부터의 비판적인 교차 검토(cross-check)’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다. 문제의 정식화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론, 그리고 그렇게 얻은 해답은 한 분야의 성취물인 동시에 그 분야가 던지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다음 단계로의 전진’은 기존의 성취물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비판적 검토는 타자의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에서 등장하는 ‘변칙사례(anomaly)의 인지’가 해당 패러다임 외부의 관점을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sup>6)</sup> 우리는 실제로 일상 속 다양한 맥락에서 교차 검토를 활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타자의 관점이 지니는 고유한 실용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전문분야 간의 대화와 교류는 이런 교차 검토의 메커니즘

---

5) 고인석(2007a) 참조.

6) Godfrey-Smith (2003), chapter 7과 chapter 9 참조.

을 작동시켜 각 분야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한다.<sup>7)</sup>

### 3. 어떤 소통이 필요한가?: 소통의 양태들

이제 중요하고도 어려운 핵심 물음을 다룰 차례다. 우리 주변에서 꾸준히 재생산되어 온 ‘두 문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근 유행을 탔던 이른바 ‘통섭’ 담론 역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통의 세밀한 정체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의 양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로 하자. 오늘의 주제인 학문적 소통을 포괄하는 문화적 소통의 범주를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진작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간-문화 간 소통의 양태 셋을 추려본다.

#### ① 섞어 만들기

이것은 상이한 문화를 한데 비비고 합쳐서 새롭게 융합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미술을 비롯해서 예술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사였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소통’이나 ‘통섭’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섞어 만들기는 먼저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혼합의 구체적 전망을 탐색하고, 예술가적 감각을 동원해서 가능성이 있는 결합들을 가려낸 후 그것을 물리적으로 실현해가는 동시에 세련되게 다듬어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는 섞고 합치고 다듬기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있으며, 섞어 만든 결과물이 어떤 종류의 참신성을 지니는가는 그 주도주체의 창조적 감각과 전문가적 역량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섞어 만들기는 성공적인

---

7) 소통이 잘되면 일반적으로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정서적 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분야 간 소통의 주된 목표라기보다는 부수적 효과다. 또한 소통의 가치와 효용을 따짐에 있어 나는 개별 학자의 인식과 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소통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별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오히려 쉽게 도달 가능한 목표이고, 비록 국소적일지언정 이미 그리로 향한 변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낮은 대신 일반적으로 실패의 대가 역시 파괴적이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광범위한 탐색과 자유로운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

## ② 남의 것 가져다 새롭게 빚어내기

이것은 앞의 섞어 만들기와 유사하지만 주체의 중심이 한 편에 고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주로 내편 문화의 어떤 점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요량으로 내가 가지지 않은 특정한 요소를 남의 영역으로부터 끌어와서 내 문화 안에서 해석하고 변형-변성시켜 내 문화의 새로운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 때 ‘내 문화’는 이런 편입을 통해 응분의 변화를 겪게 되는 반면, 도입된 요소의 본래 자리에 해당하는 문화나 영역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겪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외견상 섞어 만들기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섞어 만들기가 대개 어떤 실세계의 문제 해결과 결부된 니즈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데 비해 이것은 ‘풀어내야 할 특정한 문제’의 요구와 맞물려 시도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이 빚어내기는 앞의 섞어 만들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조절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스스럼없는 난교의 마당

‘난교(亂交)’는 원래 성적 교류의 양태를 지시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교’를 넓은 의미에서 사귀이나 교류로 읽어 보자. ‘난교의 마당’이라는 비유는 수많은 문화요소들 혹은 그것을 장착한 문화주체들이 자유로이 만나 서로 사귀고, 잠시 혹은 오랫동안 동거하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둘 사이에 아이도 낳고 하는 너른 마당의 상황을 묘사한다.<sup>8)</sup> 사실 내가 묘사하려는 상황은 일대일의 교류만이 아니라 삼자간, 혹은 임의 수의 다자간 교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난잡하다. 또 생물학적 상황과는

<sup>8)</sup> 여기서 ‘동거’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강도로 지속된 영역 간 소통과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는 그런 동거를 통해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나 새로운 전문 활동을 가리키는 비유다.



부합하지 않지만 2세도 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서넛이나 예닐곱 주체들 간의 교류를 통해 태어나기도 한다. 이런 분방하고 난잡하면서도 역동적인 교류의 마당은 특정한 결합의 유형을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둘과 나란히 농기를 망설이도록 만드는 다소간의 범주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분리하여 서술해볼 만한 소통적 문화의 거시적 양상이다. 특히 이러한 비유로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i) 특정한 목적이나 선결된 시나리오 없이, ii) 정례적이지 않지만 각 주체에게 평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접촉 빈도가 실현되는 상황이다. 또 그것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교류가 일어나는 만남의 유형(규모, 기간 등)에서 자유로운 마당이고, ‘정확한 정보’의 ‘세련된 전달’보다는 진솔한 서술과 서슴없이 묻고 가감 없이 대답하는 태도가 통용되는 마당이다. 이런 마당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유형은 다른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친구와 일과 후에 만나 음식을 함께 들며 떠드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봐, 아주 재미 있어.”

“내가 얼마 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도무지 진척이 안 돼.”

“우리 실험 알지? 글썄 며칠 전에 거기서 이런 재미있는/황당한 결과가 나왔거든.”

“그게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러이런 건가?”

이런 종류의 대화는 예컨대 대형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보고 프리젠테이션 장소에서 일어날 법한 대화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 프리젠테이션은 주도면밀하게, 보여주고 싶은 사항만을 확대시켜 보여주며,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채 해결되지 않은 것,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결과들 등 가리고 싶은 부분은 애초에 분리, 제거한 뒤 재구성된다. 실패의 경험이나 고민의 흔적은 최소한에 국한되거나 미화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세 유형의 교류 혹은 소통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효용을 지닌다. 학문간 소통을 진작하는 일은 결국 세 가지 유형의 교류를 모두 그리고 각각 촉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덧붙여 둘 것은 이런 생산

적 교류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려 할 때 이와 같은 유형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방식의 자극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세 가지 소통 양태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것이다. 그것은 다른 소통 양상의 문화적-실천적 기반을 형성하고 또 확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4. 무엇을 할 것인가?: 생산적 소통을 진작하기 위한 방안

그렇다면 학문 영역들 간의 소통을 진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글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유형의 분야 간 대화나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방안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성공의 개연성을 보편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기초 작업을 지시하며, 그런 관점에서는 구체적이고 또 시급한 것이다.

##### (1) 서로 자기네 이야기를 풀어서 늘어놓는 문화 만들기

우선, **서로에게 자기네 분야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가급적 쉬운 언어로 풀어 이야기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철학과 개별과학의 소통까지 포함하여 이 글에서 논의해 온 방향의 전문분야 간 소통을 진작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학문 간 소통의 문제는 주로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그 하나는 “왜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 분야가 이렇게 계속 소통결핍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는 원론적 문제의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참신하고도 유용한 다학문적 융합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하는 실용적 물음의 맥락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스노우의 『두 문화』 이야기의 장수 배경이기도 한 전자의 맥락은 사실 공허해 보인다.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켜 주변에서 “저 사람들 왜 별로 친하지 않지? 왜 자주 만나지도 않고 서로 얘기도

않아? 어쩌다 두 사람이 만나 얘기하는 걸 지켜봤는데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더라구!”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성장배경 속에 장성해 이제 각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들 왜 안 사귀지?”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두 맥락 가운데 비교적 구체적인 유인(誘因)이 노출되어 있는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전자의 해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자의 해결과 개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논의해 온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학문 분야 간 소통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장성한 양자가 서로 교류하게끔 유인하고 다독이는 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긴한 바탕이 바로 잡답하듯 자기네 분야 이야기를 늘어놓는 상황을 만들고 늘려가면서 차츰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일과 후에 친구를 만나서 그가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느 정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요즘 자기 실험실 또는 연구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수다 떨듯 너스레를 떨듯 풀어 놓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일부 진척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지금 시도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1962년 저서에서 토마스 쿤이 말한 ‘관광안내 책자나 외국어 교본’ 유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실제 탐구의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물, 그것도 정선된 결과물만을 친절한 계몽적 입장에서 재구성해 보여주는 성격의 전달이다. 이런 전달에서 청중에게 기대되는 것은 ‘아, 그렇군요! 효과’(Aha effect)이고, 과학에 대한 ‘잘 모르지만 경탄과 존중’의 마음이다. 이런 접근법에는 물론 일리가 있고, 실제로 긍정적 효과도 있다. 과학이 가르쳐야 할 결론적인 지식만 추려 이해시키려 해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그런 계몽적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정당화 논변이다.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효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과학이** 필요로 하는 소통 양식의 일부분일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sup>9)</sup>

이런 소통문화를 구현하는 데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를 하되 최대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공통의 언어를 활용해야 하면서, 영역 바깥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내용에 관해서도 그 요체를 그런 공통-공통의 언어 안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야기의 동기에서 자기과시나 프로파간다의 취지는 최대한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다. 자신들의 영역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런 작업에서 얻은 경험을 이처럼 소탈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 힘든 소통적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영역 바깥의 사람들이 해당 영역에 관한 알짜 정보와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이른바 ‘내부 인력들’이 자신들의 분야를 스스로 한층 잘 이해하게 된다는 효과다. 이런 효과는 또 그 영역의 내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중대한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의 방법론적 도구로 요긴할 것은 ‘비유’다. 나는 비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향후 인문학의 중요한 공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유는 결코 시적, 문학적 표현의 전용물이 아니다. 비유는 부분적으로 이해력에 호소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느낌에 호소한다. 그리고 한 사태에 대해 당연히 둘 이상의 ‘적절한 비유’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소통문화에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관해 어느 동료 전문가가 늘어놓은 ‘뜻밖의 이상한 이야기’에 무시나 빈축이 아니라 겸허한 청자로서 질문을 제기하고 보완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써 응한다.

학제적<sup>10)</sup> 소통은 현행 소통 문화의 음영지대에 널리 분포한 두 가지

9) 2009년 11월 5일 우연히 참석의 기회를 얻은 ‘문진포럼’의 토론 과정에서 이런 대비에 관한 인식이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0)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학제적(學際的)’이라는 표현이 쓰일 자리에 ‘학제간’이라는 말이 대용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새로 출범한 사업단위 명칭(‘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에 후자를 사용함으로써 ‘interdisciplinary’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후자의 위상이 높아진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학교나 교육에 관한 제도’를 의미

허위 문화 즉 “너희는 (애기 해줘도 어차피) 몰라!”와 “우린 다 알잖아요.”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후자의 허상을 극복하는 것은 전자에 담긴 오만과 체념을 극복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요체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울타리 바깥에까지 이해될 수 있을 형태로 다듬어보는 과정은 그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신선한 눈으로 넓고도 깊게 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어설픈 프로페셔널과 훈련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분야에 대한 진정한 느낌을 얻는 동시에 마이스터의 고민을 어렵פות이나마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2) 문과-이과의 담장 낮추기

이 두 번째 과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일인 듯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스노우 경의 이야기가 5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에서 여전히 알짜 의미를 갖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문과와 이과의 벽,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를 문과 혹은 이과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을 대략 무릎 높이 정도까지 낮추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난제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최근 논의되는 통섭 담론의 한 축은 ‘통합적 사유의 능력을 지닌 통섭형 인간을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세히 따지려면 별도의 글이 필요하겠지만, 이 목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복잡한 논의가 필요치 않다. 모든 사람이 통섭인일 필요는 없고, 필요한 수의 통섭 전문인력은 따로 양성하여 조달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적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양상의 가능한 통

---

하는 ‘학제(學制)’에 ‘간(間)’을 붙인 말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미와 거리가 멀고, ‘사이, 사귀, 만남’의 의미를 지닌 ‘제(際)’자를 쓰는 경우 ‘학제간(間)’이라는 조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이런 까닭에 ‘학제간’이라는 오도적 표현은 공적으로 억제하고 ‘학제적’이라는 표현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섭을 향해 열려 있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필요에 부응하는 작업의 절반 이상은 지금 언급한 문과-이과 사이 담장 낮추기로 충분하다.<sup>11)</sup> 나머지는 실제 상황에서 약간의 시도와 경험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교류와 소통의 연습이 바로 그런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중등교육의 개혁이라는 더 근본적인 길 이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실현이 가능한 추가적 방안도 있다. 그것은 대학 교양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보완, 조정하는 길이다. 여러 대학에서 시행 중인 기본영역 간 교양교과목 교차수강 제도화가 이의 한 예다. 예컨대 공학도에게 졸업 전에 몇 학점 이상의 인문학 교과목, 사회과학 교과목, 자연과학 교과목 등을 수강하게끔 하는 학사제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차수강용 교과목군’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sup>12)</sup> 이런 교과목군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영역통합적 시각으로부터 범전공적 논의와 기획을 거쳐서 준비, 구성, 관리해야 한다.<sup>13)</sup> 대학생에게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공부(수강) 계획을 허용하는 일과 선택을 방임하는 일은 다르다. 학생들을 적절한 플랜들로 매끄럽게 인도하는 일은 전자와 상충한다기보다 그것에 대해 상보적이다. “가뜩이나 바쁘데... 전공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벅차요!”와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취업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강요해야 할까요?” 같은 유형의 자연스런 반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8학기라는 기간과 총 130에서 140정도의 학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학업계획의 기본 모형들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11) 생물학 분야 세계적 석학의 글이고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지닌 글이지만 철학적 논의라는 관점에서는 영성한 프로퍼겐더로 평가해야 옳을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silience』가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까닭은 역자들의 공력과 특히 최재천 교수의 통섭적 활약, 그리고 ‘통섭’이라는 말의 아우라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영미권이냐 서유럽 학계에 비해 문과-이과 사이의 담이 한층 더 높고 두터운 우리나라의 학술문화가 반동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12) 고인석(2004) 참조.

13) 일부 국내 대학들이 이미 하버드대학교의 Core Curriculum등을 모델로 삼아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거나 구축중이다.

## 5. 철학과 개별과학의 소통

끝으로 앞의 논의를 철학과 개별과학의 관계에 적용해보자. 철학과 개별과학의 소통은 누구에게 어떤 소용이 되는가? 이 물음은 2절에서 다룬 원칙론의 경우보다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양자 간의 소통이 철학에 어떤 소용이 될지를 살펴보자. 간단히 말하자면, 이 소통은 철학에 신선한 사유와 토론의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철학적 토론과 주장의 내용에 현실적합성을 공급할 것이다. 전자는 철학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게끔 해주는 동시에 그 확장이 철학 바깥에 위치한 일반 지성의 관점에서든 자의적이거나 공허한 확장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지닌 확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또 후자는 철학적 탐구의 결과물에 부여되는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동시에 철학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철학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와 감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걸러진 2차 자료나 통속적 문헌 등을 통해 과학과 소통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 글에서 논한 취지의 관점에서 볼 때 소용이 미미한 일일 것이다. 철학의 모든 분야, 모든 철학자가 개별과학의 연구 상황과 직접적 소통에 매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러나 과학철학, 심리철학, 생명의료윤리 같은 몇몇 특정 분야들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유관한 과학의 방법론과 성과들에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고 소통의 상황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소통은 일방향적 소통으로, 철학은 이 소통에서 듣고 배우는 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철학은 개별과학과의 소통에서 듣는 자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개별과학자의 입장에서 철학을 바라본 경험이 없는 필자는 지금 이 물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 다만, 일반적인 역지사지의 방법론을 따라 철학자의 이런저런 제안과 분석과 너스레에서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의 자극과 스스로의 작업 방향에 대한 반성의 단초를 얻는 과학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 우리가 아직 아주 미미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인 이런 학문 간 소통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첨단과학들이 경청할 만한 철학 고유의 이야기가 우선 두 가지 정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하나는 가치 문제 곧 윤리에 대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체계 전체에 대한 조망이다.

수많은 개별과학이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저마다의 고유한 관점으로부터 고찰하고 그림을 그리지만, 그 조각그림들을 묶어 한 마리의 코끼리를 그려내는 일에는 과학적 탐구의 산물뿐만 아니라 탐구활동 자체를 객관화하는 특성을 지닌 철학적 관점의 고유한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sup>14)</sup> 하지만 이 거대한 코끼리는 원칙적으로 개별과학의 챔피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의 이런 코끼리 맞추기 이야기가 울림을 갖게 하려면 무슨 수로든 아주 재미나게 만들거나 —물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면 거시적 차원에서 탐다운 방식의 어떤 외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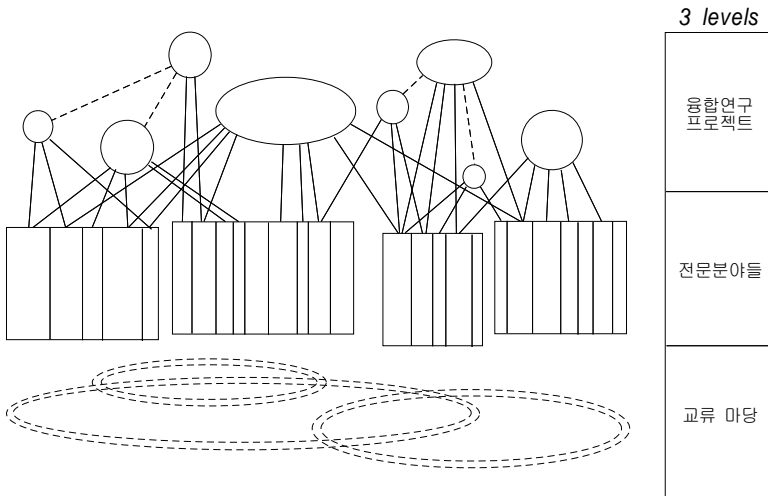
## 6. 맺는 말

아래 그림에서 좁고 길쭉한 사각형들은 전문분야들을 표현한다. 전문분야들은 관례 혹은 역사적 전통에 따라 몇 개의 군을 이루고 있지만, 전문분야 간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이런 편제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전문분야들의 층 위에 그려진 원과 타원들은 전문분야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융합연구를 표현한다. 이런 융합연구는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지속되며, 융합연구 상호간에도 다시 2차적인 융합적 결합

<sup>14)</sup> 고인석(2007b), 235쪽 이하 ‘코끼리 만들기!: 통합의 개념’ 참조. 이 글은 고인석(2000)에서 다뤘던 것과 같은 —빈 학단의 관심사였던— 학문체계 전체의 통일이나 통합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물론 철학적으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지만, 여기서 논한 국소적 소통의 실천이라는 기반을 떠나서는 무한히 먼 목표에 대한 공허한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형성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런 융합연구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조직되고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융합연구의 결과로 새로운 전문분야가 탄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니며, 융합연구에 연루된 두 분야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분야 속으로 녹아들어 버리는 융합의 경우는 더욱이 없다. 얼핏 들으면 역설적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융합연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오히려 전문분야들 각각의 뚜렷하고 안정적인 자기정체성을 요구한다.<sup>15)</sup> 뚜렷한 자기정체성을 가진 전문분야만이 계속해서 다양한 목표와 구성의 융합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융합연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결문제가 있으니, 바로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 간에 실제로 얼마나 원활한 지적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글을 맺기 전에 학문들 간의 소통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체

<sup>15)</sup> 고인석(2010), 76쪽 이하 참조. 자기정체성의 이런 ‘안정성’이 불변성이나 비가소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즉 이미 사회적 관심과 장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목적의 융합형 연구프로젝트 같은 방식 이외에, 앞에서 서술한 ‘난교의 마당’에서 이루어질 풀뿌리 소통의 축적을 통해 형성될 하부 소통문화를 진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술적 엄밀성의 내적 요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과제와 방법론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서로 낮은 수준의 언어와 비유로 풀어 설명해보는 마당, 또 서로 겸손하게 그러나 스스럼없이 캐묻고 비판해 볼 수 있는 느슨하고 자유분방한 교류의 마당을 자꾸 만들고 확대해갈 때 이런 소통문화가 두터워질 것이다. 이런 실천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과제와 방법론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느낌과 더불어’ 이해하도록 인도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문가들이 장차 필요한 융합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정밀하면서도 풍성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예고한다.

## 참고문헌

- 고인석 (2000), 「과학의 조각보 모델: 통합된 과학의 구상」, 『철학』 63.
- 고인석 (2004), 「자연과학 영역 주제통합형 교양교과목의 한 사례」,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학술세미나 <학제적 교양교육의 두 축: 기초교육과 학문 경계 허물기> 자료집.
- 고인석 (2007a), 「공시적 통약불가능성의 개념과 양상: 전문분야간 협력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103.
- 고인석 (2007b), 『과학의 지형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고인석 (2010), 「기술의 융합, 학문의 통합」, 『철학과 현실』 84호.
- C. P. 스노우 지음/ 오영환 옮김 (1993), 『두 문화』, 민음사.
- 이매뉴얼 윌러스틴 지음/ 유희석 옮김 (2004),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 장대익 옮김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 이덕환 (2009),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소통: 과학적 사실의 중요성」, 문진포럼 제6회 집중토론회 발제문.
- 이남인 (2009),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통섭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삼아」, 『철학연구』(철학연구회) 87집.
- 이정모 (2010), 「학문간 융복합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인지과학이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융합에 주는 시사」, 『지식의 지평』 9호.
- 이중원 (2010), 「학문 융합, 철학에선 어떻게 볼 것인가?」, 『철학과 현실』 84호.
- Feyerabend, P. (1975), *Against Method*, NLB.
- Godfrey-Smith, P. (2003), *Theory and Re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son, E. O. (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Vintage.

---

##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Productiv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s

Ko, Insok

---

*Tong-sop*(統攝) and *yung-hap*(融合) have been among the key words in recent academic and social discourses in Korea. But solutions for how practically to overcome the Snowian Two Cultures and how efficiently to widen and intensify th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have not been articulated. This paper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is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e aims and three relevant modes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re analyzed. Then two basic but practical approaches to the problem are discussed, i.e.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ojects and, above all, to nourish the grass-root culture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that I call garden of promiscuity.

**[Key Words]** Two Cultures,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oject, garden of promiscuity